

# 전북·해삼 양식장, 청정 진도바다가 뜬다

진도군이 전북·해삼 등 양식 최적지로 떠오르고 있다. 전남의 다른 지역에 비해 양식장이 적어 깨끗하고, 냉수대가 흘러 적조 피해도 없는 '진도의 바다'가 주목받고 있다.

진도군은 2일 "180억원을 들여 전북·해삼 양식장을 조성하고, 중국 장자도그룹 해삼종묘배양장을 건립하는 등 본격적인 양식 산업 육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전북 양식단지인 양식장은 국비 75억원, 지방비 75억원 등 총 사업비 150억원 규모로 진도를 전두리~근대면 나리해역에 400ha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북가두리 100ha, 다시마 등 먹이시설이 300ha이며 조만간 착공할 계획이다.

해삼 양식단지는 2015년도에 총사업비

바다 깨끗해 폐사를 낮고

냉수대 흘러 적조피해 없어

郡 180억 들여 양식장 조성

해삼종묘배양장도 건립

30억원의 규모로 조도면 대마도 해역에 조성할 계획에 있다.

전북성은 태풍 등 자연재해를 극복할 수 있는 내파성 가두리 시설로 건설되고, 해삼성은 섬 주변 해면에 해삼초와 투석 등을 통해 인공서식장을 조성하게 된다.

전북과 해삼은 중국, 홍콩 등 중화권에

서 좋아하는 고급 수산물로 아시아권은 물론 호주, 아프리카 등 전 세계 생산량의 대부분이 중화권으로 수출되고 있다.

진도의 전북 생산량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진도군 전북 생산량은 지난해 420t으로 20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특히 진도는 인근 타시·군에 비해 바다가 깨끗해 폐사율이 낮고, 조류 소통이 원활하고 전북 먹이 등이 풍부한 천혜의 전북양식 적지를 보유하고 있다.

전북 가두리시설과 생산 어가도 증가하는 추세다. 전북 양식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전북생산량도 1000t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연산을 따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해삼은 현재 연간 10t 정도 생산하고 있지만 해

삼종묘 배양장이 완공되면 해삼종묘 1500만미를 생산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자본의 투자를 받아 추진되는 해삼종묘 배양장 건립도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해양수산부로부터 중국 장자도어업그룹의 해삼종묘 배양장 허가 협의가 완료돼 이달말 준공을 위해 마무리 작업 중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진도 해역은 청정해역으로 전북·해삼을 양식하기에 알맞은 곳이다"며 "진도군 관내 256개의 유·무인도 주변에 대단위 양식단지를 조성해 전북·해삼을 대량 생산하고 견제품·통조림 등으로 가공해 수출하면 엄청난 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 기자 노트

### 지방선거, 단체장 뺀 나머지는 들리리?

6·4 전국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도지사과 교육감, 도의원, 군수, 군의원, 비례대표 정당을 선택하는 통합선거구지만 장흥지역 대다수 유권자들은 군수(단체장) 선거에만 몰리는 분위기다. 연일 마스크는 시·도지사 선거전을 집중 보도하고 있지만 지역 유권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오로지 우리 지역 군수가 누가 뽑히느냐에 관심을 쏟고 있다. 어찌 보면 단체장을 뺀 나머지는 들리(덜)리(들)로 치르는 선거나 다름이 없다. 주민들은 지역살림을 책임지는 군수, 군의원이란 점 때문에 도지사와 교육감, 도의원 선거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 지난달 10일 장흥 실내체육관에서 치러진 새정치민주연합 도지사 후보자 경선은 40여% 선거인단만이 참여한 가운데 흥행을 이루지 못했다.



김용기 장흥 주재기자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가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나라의 명운은 대통령에 달려 있고, 지자체의 명운은 시장·군수에게 달려 있다. 시장이나 군수에 붙는 일명 '소통령'이라는 수식어가 딱 맞는 말이다. 현재 흥행을 이루고 있는 지역 축제 또한 시장, 군수의 힘을 부추기고 있다.

지역에서는 "구멍가게만 허더라도 군수만 잘 만나면 먹고 사는데 걱정 없다"는 말은 빈말이 아니다. 그래서 선거 때 당선 가능한 군수후보에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지지하는 후보자가 군수에 당선되면 '로또에 당첨됐다'고들 말하고 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정치성 선거로 치러지는 도지사에게는 무관심일 수밖에 없다. 다음 지방선거는 흥행을 불러 일으키도록 정치권의 획기적인 지방선거 문화 개선을 기대해 본다.

/kykim@kwangju.co.kr

## 완도 소안도 6·25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

'항일(抗日)의 섬'으로 널리 알려진 완도군 소안도에서 한국전쟁 전후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민간인 희생자들의 추모 위령제가 지난 29일 소안면 희생자 추모공원에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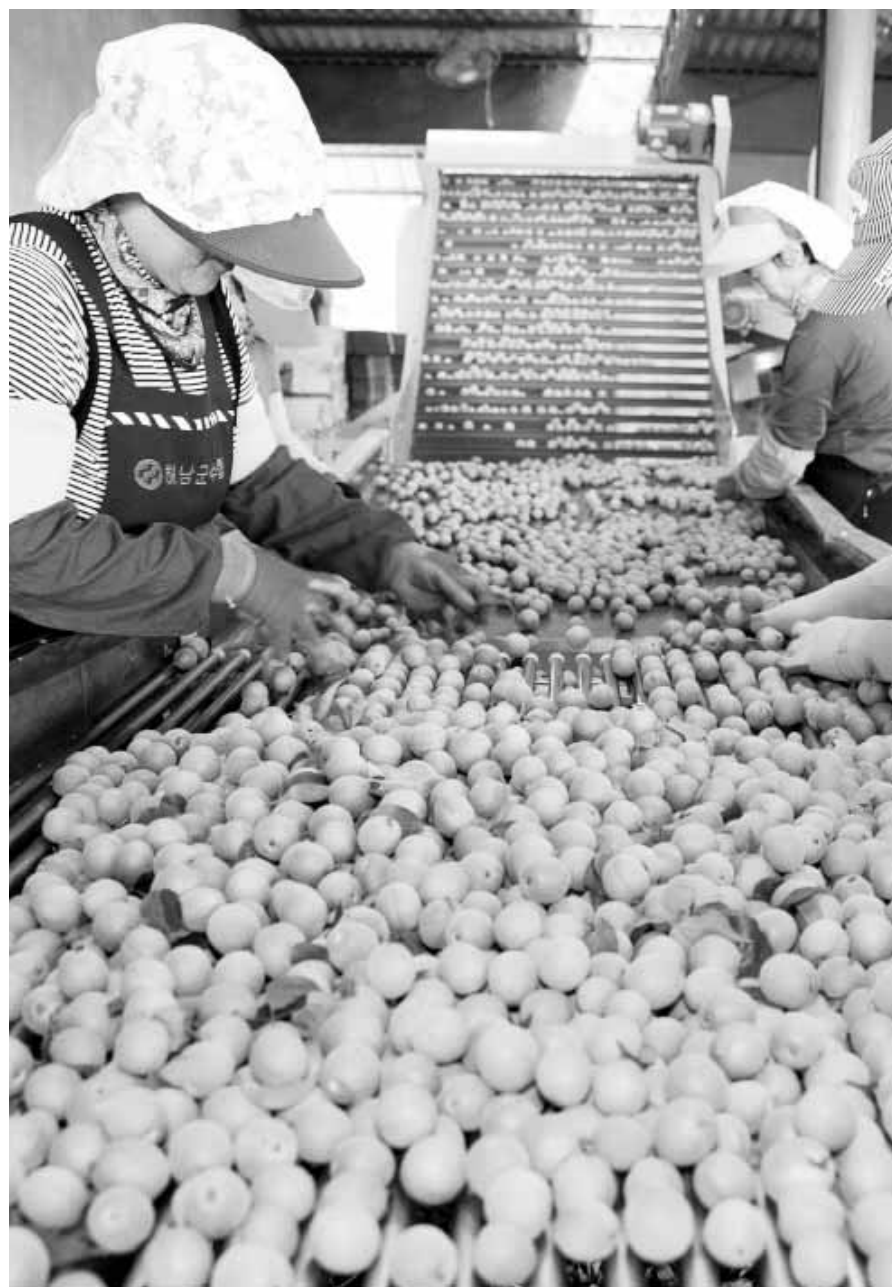
소안면 희생자 추모 사업회는 "이승만 정권이 친일 세력을 앞세워 소안도에서 항일 운동을 전개했던 주민 250여 명에 대해 학살한 사건에 분노하고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지난해에 추모비를 건립하고 위령제를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추모사업회 김영일(74) 회장은 "국가 공

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희생자 유족들은 되살아나는 기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다"며 "국가의 진솔한 사죄와 함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가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중식 완도군수는 추도사에서 "1947년에 발생한 완도군 민간인 학살 사건은 현대사에 기록된 비극적인 사건"이라며 "다시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고, 영령들을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해남 보해 매실농원 청매실 선별 해남군 산이면 보해 매실농원에서 수확한 청매실을 선별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보해매실농원은 "올해 봄철 날씨가 예년보다 높아 지난해보다 2주 정도 빨리 수확했다. 수확량도 전년 대비 10% 증가한 500여 t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해남군 제공>

## 완도 군민의 날 기념식... 양한창씨 군민의 상

완도 약산면 출신 사업가인 양한창(주)시너지통상 대표가 '제43회 완도 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2014년 군민의 상을 받았다.

완도군은 2일 "지난 3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제43회 군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양 대표에게 군민의 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군민과 출향인 등 200여명이 참석해 군민의 상 시상, 기념사, 군민의 찬가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중식 완도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올해는 해조류박람회 통해 해조류산업 활성화와 완도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킨 매우 큰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군민의 상을 받은 양한창 대표는 "고향발전과 출향인들의 화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김중식 완도군수(오른쪽)가 지난 30일 양한창(주)시너지통상 대표에게 2014년 군민의 상을 수여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 해남군, 이달 펜싱 등 9개 대회 잇단 개최

전국대회 4개·도단위 대회 4개

이달에 해남지역에서 펜싱, 근대 5종, 레슬링, 축구 등 총 9개 대회가 잇따라 개최된다.

2일 해남군에 따르면 제43회 회장배 전국 남녀 종합 펜싱선수권대회(6~11일)를 시작으로 제6회 땅끝배 생활체육 전남 야구대회(6~8일), 제25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근대 5종 경기대회(12~17일), 양정모 올림픽제패 기념 제39회 KBS배 전국 레슬링대회(18~23일), 제15회 땅끝 공룡기 좌식 배구대회(20~22일)가 열린다. 전국 근대 5종 경기대회는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열릴 의미가 깊다.

또한 '세월호' 사고의 아픔을 함께 나누

기 위해 연기됐던 대회들도 이달에 개최된다. 제6회 전남 장애인 생활체육 보치아 동호인대회(14일), 제9회 생활체육 해남군 직장인 및 동호인 축구대회(21일), 제6회 땅끝배 호남지역 축구대회(22일), 전남 도지사기 생활체육 축구대회(28~29일)가 예정돼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총 4개의 전국 대회와 4개의 도단위 대회, 1개의 지역단위 대회를 20일간 개최할 경우 연인원 1만6000명이 찾아와 16억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경기가 개최되는 만큼 스포츠 명품고장 해남의 명성을 드높일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 해남군 도시학교에 벼 체험포 설치 호응

해남군이 도시학생의 농촌체험 프로젝트 일환으로 친환경 쌀이 어떻게 생산되는지를 알려주고, 농촌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 벼 체험포를 설치해 호응을 얻고 있다.

해남군은 광주권 학교급식 친환경 쌀을

공급하고 있는 인수 영농조합법인(대표 김인수)과 함께 지난 27일 광주시 북구에 위치한 신영 초등학교에 친환경 쌀 벼 체험포를 설치했다. 해남군은 이달 중 서술권 학교 4개교에 벼 체험포를 설치할 계획이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TV조선 특별기획드라마

격동의 시대를 살아야했던 이들의 사랑과 야망!

대탈출

기획 TV조선 제작 강호 프로덕션 크리에이터 정성희 극본 이한호 연출 김상래

최수종 손태영 류진 최철호 이인혜 독고영재 정호빈 4월 25일부터 매주 금·토 밤 11시 방송

박상면 홍일권 김진근 이종수 공정한 이정용 최규한 이기찬 현석 김민경 전수경 이철민 고명환 정명환 이영후 이원석 조영서 김권 김예원 윤홍빈 김현준